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1-OL-59[1]

Date : December 18, 2021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

- 런던, 리우,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

[인상적이었던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

2021년 7월부터 8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는 조용했지만, 안방과 인터넷에서는 한국인을 열광하게 한 2020 도쿄 올림픽이 있었다. 골판지 침대, 후쿠시마산 식재료 사용 등 일본 정부의 허술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 태극전사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각 종목마다 눈에 띄었다. 항상 효자 종목으로서 대한민국의 메달을 기대하게 만드는 양궁의 경우 2004년생의 김제덕 선수와 2001년생의 안산 선수,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남자 부문 도마 은메달리스트의 딸인 여홍철 선수도 2002년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아쉽게 메달 석권에는 실패했지만, 세계적인 기록을 보여주며 '노력하는 천재' 이미지를 각인시킨 2003년생 황선우 선수와 어린 시절부터 탁구 신동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2004년생 신유빈 선수까지 어린 선수들의 활약은 다음 올림픽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서 눈길이 가는 어린 선수들과 달리 이제는 올림픽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실에 눈길이 가는 선수도 있었다. 바로 여자배구의 '김연경' 선수이다. 김연경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선출되었지만 한국팀이 아쉽게 본선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2년 런던올림픽 4위, 2016년 리우올림픽 5위로 올림픽 메달만

[1] 본 사례연구는 2021년도 가을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무원 교수의 지도 하에 당성주, 유지윤, 지민이 작성하였으며 저작권은 위의 저자에게 있음. 수업의 목적에 맞게 일부 사실을 각색, 재구성하였음.

갖지 못한 염원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풀고자 의지를 다졌다. 또한, 비인기 종목의 전형이었던 여자배구가 '김연경'을 필두로 '김희진', '양효진', '김수지' 등 개개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인기종목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여자배구팀의 활약을 지켜볼 이유는 충분했다. 이에 김연경 선수를 비롯한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올림픽에서의 행보를 런던부터 도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희망을 품고 런던으로 나아가다]

런던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여자배구팀의 발걸음은 의미부터 남달랐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성적을 5위로 마무리한 것을 끝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본선행 티켓을 놓쳐 무려 8년만의 올림픽 진출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배구는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 5위, 1972년 뮌헨올림픽 4위에 오르며 세계 배구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뒤 급기야 몬트리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금메달을 딴 일본과 함께 아시아 배구의 매운 맛을 알려줬다. 그러나 한국 배구는 1984년 LA올림픽(5위)을 끝으로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며 하향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신장을 활용한 강한 공격을 앞세운 세계 배구의 흐름을 한국 배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후,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8강에 오르는 데 만족해야 했고 4년 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는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이후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6위, 2000년 시드니올림픽 8위에 머물며 부침을 보였다. [exhibit 1]

런던올림픽에서의 여자배구는 예선경기보다 앞선 올림픽 진출행 티켓을 결정짓는 올림픽 세계예선 경기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림픽 세계예선 경기는 올림픽 티켓을 따내는 목적 이외에도 본선 진출 시 상대 국가에 대한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랭킹 13위인 한국은 이번 대회 첫 상대인 쿠바(10위)를 3:0으로 제치며 올림픽 진출의 시작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러시아(7위), 세르비아(6위)에 잇달아 패배하여 1승 2패로 몰렸지만, 23일 숙적 일본(3위)을 3:1로 이기면서 최대 고비를 넘겼다. 한국대표팀은 경기가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렸기 때문에 일본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일본 1진을 상대로 22연패에서 벗어나는 통쾌한 승리를 이뤄냈다. 주최국 일본은 한국전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일본의 경우 페루, 대만, 태국 등 배구최약체국들과 겨뤘다. 이는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하

여 한국을 이기기 위한 좋은 조건이었으며, 일본은 계획대로 3연승을 달리며 체력을 비축했지만 김연경이 버틴 한국에 완패했다. 이는 한국의 대진상대가 쿠바, 러시아, 세르비아 등 강팀과 연달아 경기를 통해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이다.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올림픽 본선행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던 고참선수들의 투지, 조직력과 디그(상대 스파이크를 받아내는 기술)의 약점을 보완한 공격위주의 전술을 기반으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신념으로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의 올림픽 진출을 이끌어 낸 김형실 감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감독은 한국 여자배구의 중흥기를 이끈 인물로서, 1979년 대표팀 코치를 시작하며 지도자 경력을 쌓았고 1997년과 2005년 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2005년 프로 출범 후에도 한동안 KT&G(현 인삼공사) 감독을 맡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예선 때는 대한배구협회 전무이사 자격으로 대표팀 단장을 맡았다. 하지만, 자신이 이끈 대표팀의 본선 진출 실패로 엄청난 비난 공세를 받아야 했다. 이후 야인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해 5월 대표팀 감독 제의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였고, 베이징올림픽의 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런던올림픽의 준비를 시작했다. 특히, 김형실 감독은 대표팀 선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며 인터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한 게임에 25점 이상을 올린다.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김연경, 한송이, 황연주, 김희진 등 쌍포가 포진하고 있다."

- 런던올림픽 출국 전 공항에서의 기자회견 中

김형실 감독은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해결사' 김연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플레이 스타일에서 김연경의 공격이 상대에 막힐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짰다. "김연경에게 향하는 집중마크를 최소화 하는게 관건이다. 그러려면 한송이나 황연주가 제 몫을 해줘야 하며 수비에서 공격까지 탄탄한 조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실 감독은 출전권을 따낸 대표팀에게 자비 600여만원을 들여 이를 기념하는 금반지를 제작하여 선수들과 나눠 끼며 각오를 다지고 '아버지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해외 이적 문제를 두고 원 소속팀인 흥국생명과 벌어진 갈등으로 힘들어 할 김연경에게 올림픽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를 다했다. 이처럼 김형실 감독이 선수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었던 이유에 대해 김감독은 "선수들이 감독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면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없고 즐기는 배구를 해야 승리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죽음의 B조에서 살아남다]

하지만, 예선 대진표가 공개되자 대표팀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만 했다. 런던 올림픽 여자배구 B조에 소속된 국가는 한국,미국(여자배구세계랭킹 1위), 중국(3위), 브라질(2위), 터키(8위), 세르비아(6위)였다. 세계랭킹으로만 경기를 예측해본다면 랭킹 13위인 한국은 예선에서 탈락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였다. 양효진 선수는 이에 대해 "사실 예선 대진표를 보고 죽음의 조인걸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예선 통과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라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길고 짧은건 실제 경기에서 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2012년 7월 29일에 미국과의 예선전에서는 스코어 3:1로 패했지만,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맞붙은 이래 올해 올림픽 예선전까지 7전 전패를 당한 세르비아에게 처음으로 스코어 1:3으로 승리했다. 이는 '장신군단'으로 불리는 세르비아지만 우리 선수들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과 꼼꼼한 수비를 토대로 1,2세트의 흐름을 가져오며, 3세트에서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곧바로 해결사 김연경이 연속 4득점을 작렬시켰다. 해당 경기는 세르비아를 상대로 한국이 첫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대표팀의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런던 대표팀에서 올림픽 경험을 가진 선수는 한송이(27,GS칼텍스), 김사니(31,흥국생명), 정대영(30,GS칼텍스) 셋 뿐이었고, 8년만의 올림픽인 만큼 선수들이 손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베테랑 선수들인 정대영과 김사니가 4세트에서 두 번의 속공과 한 번의 다이렉트킬을 연달아 합작해 거세던 세르비아의 기세를 꺾으며, 레프트 한송이도 12점을 터뜨리며 팀의 분위기를 타오르게 만들었다. 이에 '언니들'이 중심을 잡으니 후배들도 기대 이상의 힘을 냈고, 막내인 김희진(21,IBK기업은행)은 이날 주전 라이트를 꿰차고 코트에 들어와 11점을 뽑아내며 맹활약했다.

세르비아전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었던 승리의 여신은 브라질전에서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팀은 8월 2일 브라질을 상대로 열린 경기에서 김연경(24,페네르바체), 한송이(28,Gs칼텍스) 쌍포를 앞세워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브라질전의 경우 목적타 서브로 브라질의 리시브를 흔들었고, 몸을 날리는 호수비를 연발하며

브라질 공격의 예봉을 꺾었다. 특히 해당 경기에서는 한송이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브라질이 김연경을 집중마크하면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상황에서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한송이가 브라질의 범실을 유도하면서 많은 득점을 얻어냈다. 특히 3세트에서 브라질의 집중마크로 인해 고전하는 김연경을 대신하여 한송이, 정대영, 양효진(22,현대건설) 선수가 고르게 득점을 내어 브라질을 당황하게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매체에서는 한국의 승리를 이변으로 앞다투어 취재하기 시작했으며, 한국대표팀은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exhibit3]하지만, 8월 3일 터키전과, 8월 5일 중국전에서는 스코어 3:2로 승기를 내줘야 했다.[exhibit 4]

[모두가 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탈리아전의 승리]

이탈리아와의 8강 경기 하루 김형실 감독은 전날 선수촌 숙소에서 답답하게 지내던 선수들을 불러모아 인근의 공원으로 데려갔다.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활기를 되찾은 선수들은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어느 때보다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으며 결국 승리를 얻어냈다. 해당 승리 또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스코어 3:2로 힘겨운 승리를 거둔 이후 12년만의 승리였기에 그 의미가 더 부각되었다. 하지만, 경기의 초반부는 순탄치 않았다. 스코어18:25로 1세트를 내주며 시작한 한국은 김연경이 강스파이크를 여러번 성공시키며 2세트부터 경기를 리드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시작했으며, 3세트에서도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이탈리아의 흐름을 끊기 위해 노력했다. 김연경이 맹활약 하자 다른 대표팀 선수들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연경 선수뿐 아니라 한송이의 쳐내기 득점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들고, 센터 양효진의 중앙 속공으로 세트 포인트에 먼저 도달하며 승리에 한발짝 다가가기 시작했다. 양효진의 시간차 공격으로 게임 포인트를 만든 뒤 상대의 수비 범실이 이어지면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선수들 개개인의 경기력 이외에도 김형실 감독이 8강전 상대인 이탈리아가 가운데에서 라이트로 돌아나가며 때리는 이동 공격을 주로 구사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대비한 것은 물론 한국이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자 세터를 김사니에서 이숙자(32,GS칼텍스)로 교체하고 정대영, 황연주(25,현대건설)) 등의 공격 옵션을 앞세워 승부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탁월한 용병술을 발휘했다는 점도 승리요인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평소 범실이 적은게 강점이었던 이탈리아 선수들은 한국팀의 활약으로 당황하기 시작했으며, 서브와 수비에서 잇따른 실수를 저지르면서 허무한 패배를 맛봐야만 했다.

[올림픽 세계예선에서의 승리, 동메달 결정전에서의 패배]

미국에게 패배를 내어준 한국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 사활을 다해야 했다. 하지만, 동메달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 이외에도 한국이 이겨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숙적 일본을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경기 전 김연경 선수를 비롯한 일본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이미 올림픽 예선경기에서 한번 이긴 전적이 있으며, 김연경 선수의 일본 선수 생활 경험이 해당 경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김연경 선수는 인터뷰에서 "가장 붙고 싶은 팀이 일본이었다. 8강전부터 일본과의 대결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리시브와 수비가 좋다. 하지만 블로킹이 높은 팀에 약하다"며 "우리 팀에 키가 큰 선수가 많은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형실 감독 역시 한국과 일본의 배구스타일을 고려한 전략을 짜면서, 김연경의 화끈한 공격을 앞세우며, 높이(평균신장 1m 82cm)와 공수 조화를 가진 한국팀이 상대적으로 평균 신장이 1m 75cm로 작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안타까운 패배였다.[exhibit 4] 예선전을 통해 일본 선수 개개인의 패턴을 분석한 한국대표팀과 달리 일본대표팀은 예선전 패배를 통해 엄청난 준비를 해왔으며, 세트 스코어 3:0의 패배로 이끈 원인 중 하나는 일본팀 주력선수였던 기무라 사오리에 대한 준비를 중점적으로 한 한국팀의 예상과 달리 실전에서는 사코다 사오리의 플레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김연경은 이에 대해 "블로킹과 수비에서 흔들렸고 일본의 사코다 사오리에 대해 대비한 만큼 하지 못해 분위기 싸움에서 진 것 같다"고 자평하면서 "어려운 순간에 내가 더 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또한, 한국팀의 경우 경기장에서 대표팀에게 주어진 스탭이 3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10명의 스탭이 일본팀의 전력을 위해 노력한 것도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경우, 포지션별 전력분석과는 물론 팀닥터와 트레이너까지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국 대표팀의 경우 앞서 말한 감독, 코치, 한 명의 전력분석관 총3명이 배구팀을 코치하면서 행정 주무를 다하는 갖은 고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팀에 대한 배구협회의 부족한 지원은 스탭 인원에서만 부각된 것이 아니다. 당시 배구협회의 회장직에 있었던 임태희는 배구대표팀에게 56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의 환송행사에는 8천만원 가량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이 추후에 밝혀지자 이는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올림픽 예선전에서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얻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은 일본팀에게 패배하였다.

결국, 한국대표팀은 몬트리올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라야했다. 하지만, 김연경 선수는 통상적으로 우승팀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의 영광을 4위팀 선수가 받는 역사를 썼다.[exhibit 5]

[리우, 다시 한 번 도전하다]

런던 올림픽의 4강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4년이 지난 2016년, 여자 배구 대표팀은 다시 한번 메달 획득을 목표로 리우 데자네이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대표팀의 시작은 순탄치 못하였다. 우선 대표팀이 배분 받은 AD카드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AD카드란 'AccreDitation 카드'로써,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을 상시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입장권을 말하며 그 밖에 셔틀버스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카드이다. AD카드가 있어야만 감독,코치,선수들 등 전체 선수단이 경기장에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AD카드는 선수단 전체를 감당할 만큼의 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AD카드를 확보하는 방법은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대한체육회(KOC)에 AD카드를 할당해주면, 각 종목별 선수단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배 받는 것이다. 하지만 리우 올림픽 당시 배구협회가 여자 배구 대표팀의 손에 쥐여준 AD카드의 개수는 대표팀 선수 로스터 12명을 제외하고 3개에 불과하였다. 감독, 코치, 전력분석원 각각 1장씩만 할당 된 것이다. 대한배구협회의 직원은 AD카드를 배분 받지 못하여 한 명도 리우로 출국하지 못하였다. 코치와 전력분석원이 한 명씩 밖에 선수단과 동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표팀에게 전술과 전략 부분에서 큰 약점이 되었다. 그 당시 조별 예선전 상대였던 일본의 전력분석원이 5명이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상대 팀의 전술을 분석하고 대표팀의 훈련에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팀의 AD카드의 부족은 선수단의 체력적인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리우로 파견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적인 요소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는 선수단이 경기 외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했던 것이다. 리우 올림픽 당시 팀의 막내였던 이재영(19, 흥국생명)은, "몸 관리를 해주실 팀 닥터가 없어 아쉬웠어요."라 할 정도로 팀의 바쁜 경기 일정을 대비해 체력 관리를 도와줄 인력이 없었으며 통역가도 동행하지 못 하였기에 팀 내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김연경(28,페네르바체)이 팀의 통역을 도맡았고 이는 김연경의 체력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배구 협회의 열악한 지원은 4년 전 런던 올림픽과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도 개선되지 못하였다. 런던 올림픽 당

시에도 AD카드는 리우 때와 동일하게 3장이라는 부족한 수량을 배분 받았고, 아시아 게임에서 중국을 누르고 20년만에 금메달을 차지한 여자 배구 대표팀은 배구협회로부터 김치찌개를 대접받아 누리꾼들의 비난을 산 적이 있으며 결국 김연경이 사비를 써 추가적인 뒤풀이를 진행하였을 정도로 대표팀에 대한 열악한 지원과 무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리우에서의 지휘봉은 이정철 감독(56, IBK기업은행)이 맡게 되었다. 이정철 감독은 1996년 여자 배구 대표팀 트레이너를 시작으로,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청소년 여자 대표팀 감독과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다. 또한 2006년에 감독직을 사퇴하려 5년 동안 배구협회 전무이사를 역임하느라 감독 경력의 절단이 있었던 김형실 감독과는 달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IBK 기업은행 감독을 지내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수단을 코트에서 지휘하며 현장 감각을 유지하였다(Exhibit 6). 배구 협회에서 이정철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결정적인 이유는, 2011년에 창설된 IBK 기업은행 국내 프로팀을 데리고 창설된지 2년 만에 국내 리그 우승을 한 경력도 있기 때문이다. 배구협회는 리우 올림픽 개최 시점에서 가장 국내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국대 경력까지 고루 갖춘 이정철 감독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정철 감독은 김연경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며 대부분의 팀 전술이 김연경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런던 올림픽을 지적하며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팀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연경 이외의 다른 공격수들 모두가 공격을 통한 포인트 획득이 가능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이정철 감독의 지도 스타일은 매우 직설적인 편이다. 평소 선수들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바로 질책을 가하며 국내 배구 리그에서 이정철 감독이 지도하는 팀의 작전 타임은 분위기가 살벌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이후에는 이정철 감독의 지도 스타일이 다소 부드러워졌다고 알려진 바 있으나,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에는 직설적이고 냉철한 감독에 속하였다. 그는 선수들을 부드럽게 타이르며 온화한 모습으로 선수단의 단합시키기 보다는, 선수들을 향한 직설적인 피드백과 정확한 동기부여를 통해 팀의 단합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리우 올림픽에서 이정철 감독은 선수단에게 3가지 동기부여 사항을 강조하였는데, 리우 올림픽이 개최된 2016년이 1976년 몬트리올에서 여자 배구 역사상 최대 성적인 동메달 획득을 이룬 지 정확히 40년이라는 점, 런던 올림픽 4강 당시 일본에게 패배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국 배구의 역사가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동기부여로 팀을 하나로 묶고자 하였다. 이처럼 리우 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이정철 감독에 대해, 배구계에서는 런던 올림픽 당시의 김형실 감독보다 대표 팀 선수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했다는 평이 돌았다. 그러나 여론 한편에선, 감독의 역량은 결국 대표팀의 성적 결과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신중한 이정철 감독의 선임 절차가 김형실 감독의 4강 진출 이상의 성적을 보장할 만큼의 확실한 결정적인 변수일까라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선수단의 경우, 이정철 감독의 신구(新舊) 조합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맏언니인 이효희(35,한국도로공사)와 남지연(33,IBK기업은행), 김해란(32,KGC인삼공사)을 중심으로 구축된 베테랑들과 첫 올림픽 출전 기회를 부여 받은 박정아(23,IBK기업은행)와 이재영(19,흥국생명)으로 구성된 일명 막내라인이 존재하였고 그 두 집단을 김연경과 양효진이 중간에서 이어 주었다. 1980년생인 맏언니 이효희와 1996년생인 막내 이재영의 나이차이는 무려 16살이나 날 정도로, 선수단을 구성함에 있어서의 이정철 감독의 철학은 확고하였다. 선수단의 분위기는 지난 런던에 비해 훨씬 상기되어 있었다. 런던 올림픽 때 어린 축에 속했음에도 선배들 속에서 기죽지 않고 상기되어 활력 넘쳤던 모습을 보인 김연경이 리우 올림픽 때는 주장을 맡게 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팀원들을 격려하였기에 자연스럽게 팀의 분위기는 활기차게 되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리우에서 한국 선수단 안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 꼽혔다. 국가대표 팀에게 한식을 제공하며 선수단 식단을 관리를 담당한 조성숙 코리아하우스 영양사는 "키도 크고 예쁜 선수들이 시끌벅적 재밌게 밥을 먹고 갔다"라며 기억에 남는 국가대표 팀으로 배구 대표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조된 팀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 중에는 지난 런던에서 일본에게 패하여 탈락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선수단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도 있다. 이정철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분위기도 양호하였다. 냉철하고 직설적인 성격의 이정철 감독과 상기되고 활력 넘치는 분위기의 선수단이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부조화가 우려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팀 분위기가 형성되며 대표팀의 출발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일본전 승리, 지난 패배를 설욕하다]

A조에 배치된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 러시아, 일본, 아르헨티나 그리고 카메룬과 경쟁하게 되었고 조별리그에서 4위 이상을 차지하면 8강에 진출할 수 있다. 열악한 배구 협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좋은 팀 분위기 속에서의 대표팀은 조별 예선 1차전부터 일본

을 맞이하였다. 한일전이라는 명분과 지난 런던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동기도 있었지만, 2강(브라질,러시아)-2중(일본,한국)-2약(아르헨티나,카메룬)양상으로 구성된 A조에서 안정적으로 4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1차전에서의 승리는 남은 조별 예선을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였으며,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라도 대표팀은 일본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 대표팀은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에이스 역할을 하던 다케시타 요시에의 은퇴로 인해 세터진이 약화된 상황도 대표팀에게는 놓쳐선 안되는 경기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다시 만난 일본을 상대로 한국 대표팀은 지난 런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런던에서의 4강전에서는 공격 옵션이 김연경을 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단조로웠으며, 위기 상황에서 김연경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에 위기 상황에서 김연경이 상대팀에게 묶였을 경우 무기력하게 무너지곤 하였다. 이번 조별 예선전에도 대표팀에게 위기 상황은 찾아왔다. 1세트에서 일본은 한국 대표팀을 몰아 부쳤는데, 1세트 초반에 서브 에이스(서브 공격으로 얻은 득점)로만 5점을 획득하였고 키무라와 나카유마 미유로 구성된 공격진을 통해 대표팀을 흔들었다. 이에 대표팀의 박정아는 리시브에서 계속하여 범실을 하며 점수를 내주었다. 상대팀도 이러한 박정아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서브를 박정아의 방향으로 집어넣었다. 계속된 실책에 자신감이 떨어지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박정아로 인해 점수 차이는 벌어졌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정철 감독은 1세트 후반에 박정아를 빼고 대표팀 막내였던 이재영을 투입하였다. 처음 출전하는 올림픽이었음에도 이재영은 리시브를 성공적으로 해내었고, 레프트 포지션을 맡았던 김연경의 파트너(레프트 파트너)로써 수비 가담율이 높았던 김연경이 수비에 가담하였을 시에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몰리는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Exhibit 7). 이재영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세트는 이미 점수차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상태였고 19대 25의 스코어로 1세트를 내주었다. 그러나 박정아의 범실로 인해 빼앗긴 초반 흐름을 이재영이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에게 1세트를 내주었으나 분위기 회복에 성공한 대표팀은 1세트 이후 2세트부터 4세트까지 진행되는 동안, 런던에 비하여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음을 선보였다. 김연경이 4세트까지 30득점을 성공시키며 여느 때처럼 자신의 이름값을 보여주었을 뿐더러, 지난 런던에 이어 이번에도 출전한 양효진이 21득점을 성공시키며 김연경 다음으로 많은 득점에 성공시켰다. 또한 극적인 상황마다 블로킹(4개)과 서브 에이스(4개)를 선보였다. 국내 여자배구리그에서 뛰며 지난 런던에 비해 4년만에 경험적 및 실력적으로 향상된 양효진은, 김연경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다양한 볼 배급 능력을 선보이던 세터 이효희와 호

흡을 맞추며 다양한 공격 시도를 하였고 일본 수비진을 흔들었다. 이 경기에서의 대표팀에게는 런던에서의 단조로운 공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양한 옵션의 공격은 코치진의 노력에도 기인하였다. 지난 런던에서는 일본에 대한 분석 수준이 선수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일본전에서는 대표팀의 코치진이 일본의 수비와 전략에 대한 분석을 미리 끝내 놓았기에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표팀은 1세트를 내주었지만 2,3,4세트를 모두 가져오며 세트 스코어 3대1을 기록하였고 지난 올림픽에서의 패배에 대한 설욕에 성공하였다.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 대표팀은 기존의 상기되고 활력 넘치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체력적인 분배가 수월해졌으며 조별 예선 통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네덜란드전 패배, 메달 획득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다]

조별 예선을 3승 2패로 마무리하면서 조 3위의 자격으로 8강에 진출하였으며 대표팀의 8강 상대는 네덜란드였다. 경기 양상은 다소 무기력하게 흘러갔다. 조별 예선에서의 일본전부터 기미가 보였던 서브 리시브가 다시 한번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에게 1세트를 내어줬던 양식과 비슷하게 네덜란드에게 1세트와 2세트 모두 내어주었다. 이 날 김연경은 27득점을 따내면서 양 팀 통틀어 최다 득점자가 되었으나 대표팀이 세트 스코어 1대3으로 패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박정아의 서브 리시브로 인한 실점이 23점에 달하면서 이는 이 날 중요 패인 중 하나로 지적 받았다. 이정철 감독은 이재영을 박정아 대신 투입하였으나, 일본전과 다르게 이재영도 서브 리시브에서 똑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철 감독은 네덜란드 선수들이 장신임을 감안하여 이재영(신장 178cm)보다는 블로킹에서 우위가 있는 박정아(신장 187cm)를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다 서브 리시브 실점자인 박정아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지만, 이 날 대표팀의 수비는 박정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정아의 포지션 대체자 이재영, 리베로 김해란 등 전반적인 대표팀의 수비와 서브 리시브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공격 부분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대표팀의 공격이 김연경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공격의 시도를 분산시켜야 할 김희진과 양효진의 득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또다시 김연경에게 의존하는 양상이 펼쳐졌다. 이에 김연경만 집중 견제만 하면 되는 상황이 온 네덜란드는 비교적 쉽게 경기를 리드할 수 있었다. 경기가 종료된 이후, 국민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질책이 네덜란드전의 최다 실점자였던 박정아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박정아는 그녀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어야 만했다.

한편으로는 박정아 개인보다 한국 배구 시스템을 보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네덜란드전 패배 이후 한국 배구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한국 배구 시스템이 반쪽 자리 선수들을 육성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네덜란드전에서 수비 불안의 시작은 박정아와 이재영이 담당하던 레프트였다. 박정아와 이재영의 경우, 리우 올림픽에서처럼 대표팀에서의 포지션은 수비에 중점을 둔 레프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소속 국내 배구팀에서는 공격을 주로 담당하는 선수들이다. 지금의 한국 배구는 공격을 잘 하는 선수에게는 상대적으로 수비 연습을 소홀히 시킨다. 국내 프로팀과 학교 배구팀에서는 레프트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공격형 레프트와 수비형 레프트로 구분한다. 공격형 레프트로 지정된 선수는 공격만, 수비형 레프트로 지정된 선수는 수비만 주로 연습하고 팀에서도 그와 같게 기용된다. 따라서 공격형 레프트는 서브 리시브와 같은 수비에서 약점을 보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국 배구의 시스템의 부정적 사례를 보여준 것이 이번 리우 올림픽이었다. 국내 배구 리그에서는 팀 간의 신장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며 블로킹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배구 시스템이 유효하였지만 올림픽처럼 상대적으로 신장이 큰 나라들에게 반쪽 자리 선수들은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런던 올림픽보다 상대적으로 더 동기부여 되고 전술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한 리우 올림픽이었으나 고질적인 수비 문제에 가로막히며 여자 배구 대표팀은 메달 획득의 기회를 4년 뒤로 또 한 번 미뤄야 했다.

[도쿄 올림픽에서 One-Team이 된 여자배구 대표팀]

2021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원 팀 (One team)'이었다. 사실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세계 정상급 팀들을 상대로 3승12패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왔을 때만해도 여자 배구 대표팀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배구계의 스타 쌍둥이 스타인 이재영, 이다영 자매(25세,P.A.O.K.)가 학폭 문제로 배제되고, 부상으로 강소휘(24세,GS칼텍스 서울 KIXX),김희진(30세,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이 이탈하면서 주장인 김연경(33세,상하이 브라이트유베스트)도 "1차 목표는 조별 리그 통과"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VNL 이전부터 이탈리아 리미니에서의 3주 넘는 '버블' 기간과 한국에 돌아와서 자가격리와 하동에서의 코호트 훈련, 진천선수촌 입촌까지 세 달 넘게 선수들은 매일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다.

하지만 올림픽을 거쳐가며 항상 고질적으로 지적받은 '적은 규모의 선수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2021년 5월 14일 대한백협회(KVA)의 선수 등록 현황에 따르면, 13세 이하(초등학교)~16세 이하(중학교)~19세 이하(고등학교)~대학교 등록선수는 각각 366명, 375명, 324명, 200명이다. 여자 선수의 경우 295명, 241명, 186명, 62명의 초중고대학 선수와 45명의 실업선수, 107명의 프로선수가 있다. 또한 여자 배구의 팀 개수도 남자보다 적은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17개, 대학교 4개이다. 실업팀은 5개, 프로팀은 이번에 페퍼저축은행이 창단하여 총 7개 팀이 됐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선수가 주로 4~6학년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배구가 가진 선수 공급의 인프라는 남여를 합하여 1년에 약 100정도이며, 저출산 고령화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여자배구의 유소년 공급 수준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나라의 프로리그는 유소년 선수 숫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리그가 필요한 선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유소년 선수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소년 선수의 규모도 적으며 유소년 리그 시장 규모도 작아, 고질적으로 지적된 ‘선수 공급 문제’ 해결이 필요해보인다.

앞선 경기 외적인 요소들과는 달리, 경기 내적인 요소인 감독과 선수단은 이전 경기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의 감독으로 비선수 출신에 한국과의 연관성이 전무한 외국인 감독인, 스테파노 라바리니(42세,이탈리아)를 선임하였다. 여자배구 대표팀에서 외국인 감독 선임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박기주 이사의 건의와 오한남 회장의 적극적인 지지가 만든 결과이다. 여자경기력향상위원회의 박기주 이사는 " 6명의 현역 프로팀 감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한국 배구의 전환점을 만들고 획기적인 일을 해야한다 "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배구협회의경제 능력이 떨어져 외국인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줄 수 있겠냐는 내부 반대여론이 있었고, 오한남 회장은 "만일에 돈이 필요하면 협회의 출연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며 외국인 감독 영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외국인 감독 선임 과정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감독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은 1월 초순이었다. 국제부의 실무자가 해외의 에이전트를 통해 감독 후보자로서 4명을 추려냈고, 이 가운데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2명으로 압축했다. 2명의 후보에게 배구협회가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한 명은 이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다면서 스스로 포기하여 라바리니 감독만이 남았다. 하지만 라바리니 감독은 당시에는 브라질 리그를 진행 중이라 한국에 빨리 와서

대표팀과 훈련을 할 수 없었고, 외국인 감독과 한국인 선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제공할 코칭 스태프와 통역 비용도 감당해야했기에 한국 여자 대표팀 감독 선임 그 자체는 도전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임된 라바리니 감독은 자신만의 훈련방식으로 대표팀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했다. 우선 라바리니 감독은 선수단 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원팀이 되는 것을 강조하여, 감독으로서 무겁게 격식을 차리기 보다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수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다. 또한 주장 김연경에 의존하는 훈련보다는 어린 선수들을 포함하여 로스터에 있는 모든 선수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훈련을 진행하여 승패에 대한 특정 선수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특히 라바리니는 "모든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앞선 감독과는 차별화된 철학을 가지고 공격 방향을 다변화하는데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라바리니의 특기는 '맞춤 전술'이다. 조별리그에서부터 상대팀에 맞춘 전략을 짜고 이에 적합한 맞춤형 훈련 방식으로 많이 할 것을 강조하여였으며, 선수들을 선발할 때도 먼저 머릿속에 전술과 시스템을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구상해 놓은 상태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선수들이 어려워해도 기술적인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고집하여 일관되며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선수단의 경우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은 2021년4월부터 이어진 강화훈련, 발리볼네이션스리그, 하동군 코호트훈련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올림픽에 참가할 12명의 선수를 최종 선발했다. 대표팀 주장 김연경을 비롯해 표승주(29,IBK기업은행), 이소영(27,KGC인삼공사), 박정아(28,한국도로공사)가 레프트에 선발됐고, 리베로는 오지영(33,GS칼텍스)이 , 라이트에는 김희진(30,IBK기업은행), 정지윤(20,현대건설)이 자리를 잡았다. 라바리니 감독이 가장 고심했던 센터에는 양효진(32,현대건설), 박은진(22세,KGC인삼공사), 김수지(34,IBK기업은행) 총 3명이 선발됐다. 특히 주전 멤버였던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이탈하면서 공백이 생긴 세터 자리는 발리볼네이션스리그에서 대표팀과의 호흡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염혜선(30세,KGC인삼공사)과 안혜진(23세,GS칼텍스)을 선출했다. 라바리니 감독은 “하동에서의 훈련은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선수를 선발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번 올림픽 대표 선발은 긴 시간 고민한 결과, 팀에 전술적으로 조금 더 부합하는 선수를 선발했을 뿐 절대 선수 개인이 가진 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선수단 내부 분위기도 원팀으로서 단합력이 강화되었다. 대표팀 주장인 김연경의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사실리 선수단을 지난 두 올림픽 때보다 더 강하게 집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 김연경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 런던 때의 언니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팀워크가 가장 좋았다"라며 대팀의 끈끈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또한 국내의 일반적인 감독과 달리 격식을 강조하지 않고 선수들과도 하나가 되려는 라바리니의 감독은 평소에는 격의 없이 친구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되, 경기 중에는 냉정하고 치밀한 태도를 유지하여 메달 수확의 마지막 기회라는 동기부여를 극대화하여 팀워크를 향상시켰다.

[조별 예선, 한일전에서의 승리]

한국과 일본 여자 배구 대표팀은 도쿄 올림픽에서 3번 연속으로 만나게 되었다.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나 0:3으로 한국이 패했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조별예선에서 만나 3:1로 한국이 승리했다. 일본 여자 배구 대표팀은 한국 대표팀보다 평균 신장이 5cm 정도 작지만, 기술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가대항전에서 일본에게 0:3 완패를 당한 이력이 있고 도쿄 올림픽이 홈코트라는 이점이 있어 여자 배구 대표팀에게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또한 예선전에서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해야 최소한으로 조 3위를 확보해 8강에서 배구계의 강팀인 미국과 러시아를 피할 수 있기에 절박한 상황이었다. 한편 일본도 앞선 브라질과의 대결에서 0:3으로 완패해 현재 1승 2패인 상황이어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패한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 어려워지기에 양 팀간의 팽팽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특히 일본 대표팀의 민첩하고 빠른 공격이 특기인 하야시 코토나와 이시카와 마유가 경계 대상이었으며, 에이스인 코가 사리나가 발목 염좌 부상을 입긴 했지만 훈련을 소화하며 출전 의지를 보인 끝에 예상대로 출전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었다.

경기의 중반인 4세트까지는 한국이 승기를 잡지 못한 채 결국 15:25로 세트를 뺏겨 5세트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마지막 5세트 에서는 12:13에서 12:14로 일본에게 매치포인트를 내주며 벼랑 끝까지 몰렸으나, 여기서 박정아의 연속 득점으로 듀스를 만들었다. 이는 리우올림픽 때 경기력 부진의 이유로 팬들의 질타를 받았던 박정아가 올림픽 이후에 단발 머리로 이미지를 바꾸고 경기력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여 정규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히고 KOVO컵에서도 MVP로 뽑힐 만큼 피나는 노력을 한 대가가 이

번 올림픽에서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은 타임아웃을 두 번이나 쓰면서 점수를 내기 위한 작전 타임도 가졌으나, 일본의 공격 범실로 1점, 밀어넣기로 마지막 득점을 결정지으며 16:14의 대역전극으로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러한 역전극은 전략적, 기술적인 접근 이외에도 정신적인 요인들도 크게 차지했다. 라바리니는 한일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여 "원래 기술이나 전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오늘은 정신적인 부분을 특별하게 준비했다. 세상에서 유일한 한일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런던에서는 일본에게 패했지만 리우와 도쿄에서 승리한 것처럼 김연경과 같은 특정 주요 선수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골고루 뛰어난 역량을 자기 역할 내에서 펼쳤던 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3세트에서 일본과의 위태로운 경쟁 상황에서 이소영이라는 다소 어린 대체자가 제 역할을 해줬으며, 김연경 이외에도 득점과 블로킹으로 선점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이전 올림픽때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선수 기량이 향상되고 선수층도 두꺼워졌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는 박정아 선수가 5세트 12대 14 매치 포인트에서 2연속 득점하여 긴급한 순간에 득점하여 승기를 잡은 모습은, 리우 올림픽때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다.

[8강, 쉽지 않았던 터키전에서의 짜릿한 역전승]

터키와 대한민국 여자 배구 경기의 전적은 2승 7패로, 2010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긴 것을 끝으로 2021년까지 연속적으로 6연패였다. 또한 도쿄 올림픽 전의 가장 최근 대결인 2021 발리볼 네이션스리그(VNL)에서도 세트 스코어 1:3으로 진 상황이었다. 또한 터키팀의 평균 신장이 대한민국보다 6cm 더 크기 때문에 높이 및 힘싸움에서 밀린다는 평이 많았으며, 터키 대표팀은 높은 신장을 바탕으로한 날카로운 공격과 블로킹이 막강한 상대였다. 한편 터키 배구 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는 주장 김연경이 상대팀의 특징 및 전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대한민국 대표팀 코치 세자르 에르난데스가 터키 프로팀 바키프방크 SK 소속으로서 상대팀의 스태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1세트에서는 17:25로 승기를 잡지 못했지만 2세트 부터 양효진의 블로킹 득점,김수지와 염혜선의 서브 에이스, 박정아의 공격, 김연경의 왼쪽 강타로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4세트에서 심판 판정 항의를 이유로 3세트에서 경고를 받았던 김연경이 단독 레드카드를 받았고, 터키가 4세트를 18:25로 가져가며 5세트까지 접점이 이었졌다. 마지막 5

세트에는 김연경의 스파이크와 5연속 공격 성공으로 인해 15:13으로 이기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터키전에서는 정지윤, 박은진과 같은 어린 선수들이 리우에서와는 달리 후반부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정지윤은 특유의 강스파이크로 투입 초반 3스파이크를 모두 성공시켰으며 밀어내기를 통해 4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박은진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켰다. 또한 박정아도 지난 두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이 항상 지적받았던 김연경의 레프트 파트너 자리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해주었으며,양효진도 김연경을 보조하며 블로킹 6개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연경도 선수들을 수시로 다독이며 차분한 경기 운영을 주문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 5연속 득점을 하면서 위기 때마다 주장으로서 맹활약을 펼쳤다. 이번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4강 진출로 한국프로배구연맹에서는 선수단 격려 차원에서 추가 격려금 1억원을 받았다. 원래는 4강에 들면 1억원을 주려고 했지만 뛰어난 역량을 선보여주고 국민들에게 감독을 선사한 대표팀에게 추가로 격려금을 지원한 것이다.

[4강, 막강한 브라질 대표팀을 만나다]

조별 풀리그에서 0:3으로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에게 패배한 후, 준결승전에서 다시 만나 리벤지 매치를 펼치게 되었다. 브라질은 도쿄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4강까지 전승으로 올라온 세계 랭킹 2위의 막강한 팀이며, 대한민국과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45승 18패를 기록하여 전력 측면에서 크게 차이났다. 한편,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2017~19년 브라질 미나스 테니스 클루브에서 감독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이때 지도한 선수 다섯 명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고 있어 상대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오전에 경기를 펼쳤던 대한민국과 야간에 경기를 펼쳤던 브라질 사이에는 약 10시간 정도의 휴식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이점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를 10시간 앞두고 브라질의 주전 아포짓 스파이커인 탄다라 카이세타가 경기 전인 7월 7일에 진행한 도핑 검사에 적발되어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 및 귀국 조치되었다. 이는 리우 올림픽 때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 다케시타 요시에가 은퇴하여 상대편의 전력이 약화된 상황과 비슷한 사례로서, 상대국인 브라질에게는 악재이나 한국에게는 호재였다. 하지만 탄다라가 컨디션 난조로 인해 주전으로 활동하지 않은 경기에서도 브라질이 뛰어난 공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경험을 생각하면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3세트 모두 브라질이 득점하며 대한민국의 준결승전은 패배로 끝났다. 특히 양팀간 공격 전술의 폭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대한민국은 경기 내내 패턴이 몇 개 없는 단조로운 느낌의 전위 공격을 진행했으나 브라질은 철벽 블로킹으로 차단하고 예측 지점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리시브와 디그를 구사하여 수비 부담을 줄여나갔고 근접, 원거리 공격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터키와의 8강 전에서 깎인 체력으로 인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브라질이 김연경을 집중 견제하여 공격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다.

[마지막 경기, 동메달 결정전에서의 패배]

브라질 전에서의 패배 이후 멘탈의 개선과 체력 회복을 위해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은 경기 전날인 8월 7일 전체에 별도의 훈련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일로 지정하여 선수들을 배려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또한 메달 유무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김연경이 은퇴를 앞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배구팀 대외적으로 의미있는 경기였다. 한국 대표팀의 평균 신장보다 8cm나 큰 세르비아 대표팀은 뛰어난 공격, 수비력을 갖췄으며,특히 에이스인 티아나 보스코비치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인 경기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이와 파워 측면에서 한국 대표팀이 세르비아 대표팀에게 뒤진 상황이었고, 경기 내내 대한민국 센터의 약점을 파악한 세르비아가 보스코비치를 중심으로 빈곳을 적재적소에 찌르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실행하면서 한국팀들이 극복하지 못한 '타점 높은 몰빵 공격'에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김연경과 같은 소속팀에서 뛴 경험이 있는 보스코비치가 김연경의 전략을 미리 알아내고 페이크 공격을 손을 슥 빼면서 안 속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오면서 기습공격도 잘 통하지 않았다. 이에 0:3으로 셧아웃을 당했으며, 3번의 세트 모두 20득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도쿄 올림픽을 4위로 마무리했다.

[여자배구 대표팀의 미래를 기대하며]

세번의 올림픽을 거치며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점차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도쿄 올림픽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면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주장이었던 김연경이 은퇴를 하고 여자 배구 대표팀 내 리더십의 부재,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수준의 선수가 아직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여자배구 대표팀 조직의 성과가 어떻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배구협회, 감독, 선수단 등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조직 내외부적인 학습 과정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기대된다.

[질문]

1. 배구 협회는 감독 차원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1-1. 배구협회의 감독 선출 과정을 feedback process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1-2. 세 감독의 경기전략을 feedback process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2. 대표팀과 감독의 김연경에 대한 의존도는 feedback process 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올림픽의 여러 경기 중 feedback process 관점에서 성장한 경기에 대해 말해보자. 잘못된 feedback process로 인한 실패한 경기는 없었는가?

[Exhibit 1.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역대 올림픽 전적]

연도	장소	남자				여자			
		1위(금)	2위(은)	3위(동)	한국성적	1위(금)	2위(은)	3위(동)	한국성적
1964	일본	소련	체코	일본	10위	일본	소련	폴란드	6위
1968	멕시코	소련	일본	체코	-	소련	일본	폴란드	5위
1972	독일	일본	동독	소련	7위	러시아	일본	북한	4위
1976	캐나다	폴란드	소련	쿠바	6위	일본	소련	한국	3위(동메달)
1980	소련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	소련	동독	불가리아	-
1984	미국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5위	중국	미국	일본	5위
1988	한국	미국	소련	아르헨티나	11위	소련	페루	중국	8위
1992	스페인	브라질	네덜란드	미국	9위	쿠바	러시아	미국	-
1996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유고	9위	쿠바	중국	브라질	6위
2000	호주	유고	러시아	이탈리아	9위	쿠바	러시아	브라질	8위
2004	그리스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	중국	러시아	쿠바	5위
2008	중국	미국	브라질	러시아	-	브라질	미국	중국	-
2012	영국	러시아	브라질	이탈리아	-	브라질	미국	일본	4위
2016	브라질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	-	중국	세르비아	미국	5위

[Exhibit 2. 런던 올림픽 여자배구 예선 B조 중간 순위]

여자 배구 B조 중간 순위

순위	국가	승점	승	패	세트 득실
1	미국	9	3	0	+7
2	한국	6	2	1	+3
3	중국	6	2	1	+1
4	터키	4	1	2	0
5	브라질	2	1	2	-4
6	세르비아	0	0	3	-7

한국 조별 리그 남은 일정

(터키전) 3일 오후 10시 45분

(중국전) 5일 오후 7시 30분

[Exhibit 3. 런던올림픽 브라질전 분석표]

*

Match 18

P2

BRA vs KOR
0 3

Match Duration: 1h 34n
Spectators: 11000

Teams	Sets	1	2	3	Total
BRA	0	23	21	21	65
KOR	3	25	25	25	75
	Playing Time	29m	30m	29m	1h 28m

First Referee: DAVIDSON Mitchell (CAN) Second Referee: SALVATORE Patricia (USA)

BRA - Brazil

No	C/L	Name	1	2	3	4	5	Pts
1	C	CLAUDINO Fabiana	4	5	6			10
3		LINS Danielle	13	9	1			1
4		PEQUENO Paula	6		16			1
5		SILVA Adenizia			6			2
6		MENEZES Thaisa	1	2	3			8
8		CARVALHO Jaqueline	4	1	2			6
9		FERREIRA Fernanda	5	6	13			
11		CAIXETA Tandara		13				
12		PEREIRA Natalia	9		3			
13		CASTRO Sheilla	2	3	4			16
14	L	OLIVEIRA Fabiana	L	L	L			
16		RODRIGUES Fernanda	3	4	5			10

Coach: GUIMARAES Jose
Assistant: JUNIOR Paulo

KOR - Korea

No	C/L	Name	1	2	3	4	5	Pts
3		HA Joon-Eem		4				
4	C	KIM Sa-Nee	2	3	2			2
5	L	KIM Hae-Ran	L	L	L			
7		LIM Hyo-Sook						
10		KIM Yeon-Koung	3	4	3			21
11		HAN Yoo-Mi		17				
12		HAN Song-Yi	6	1	6			16
13		JUNG Dae-Young	1	2	1			9
14		HWANG Youn-Joo	19	19	19			
17		YANG Hyo-Jin	4	5	4			8
19		KIM Hee-Jin	5	6	5			2
20		LEE Sook-Ja						

Coach: KIM Hyung Sil
Assistant: HONG Sung Jin

[Exhibit 4. 런던 올림픽 본선전 대진성적표]

[Exhibit 5. 김연경 MVP상]

[Exhibit 6. 이정철 감독 약력]

소속	선수	금성사 (1983~1989)
	감독	흥국생명 (2001~2003) 대한민국 청소년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2004)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2007~2008) **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 (2011~2019)**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2015~2016)
	코치	성균관대학교 (1989~1992) 효성 (1992~1994) 호남정유-LG정유 (1994~1997)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1998) 현대건설 (1999~2001)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2005 / 수석 코치)

Exhibit 7. 첫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이재영

References :

역대 올림픽 배구(남자/여자) 성적 (메달 현황 및 한국 순위 포함)
https://m.blog.naver.com/dicasub/221768258511
여자배구 김연경 "뜻깊은 올림픽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20811060400007
김연경 '브라질 악몽' 9년 만에 깼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03/2012080300080.html
김연경 "나 때문에 못하면 안 돼"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724000025
女 배구 '해결사' 김연경 앞세워 4강행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1208084041g
의미있는 도전하는 女배구 김형실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39530
올림픽, 덤벼라!... 여자배구 8년 만에 올림픽 진출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120527/46560522/1
세르비아 잡은 女배구 "분위기 띄웠다"
https://www.yna.co.kr/view/AKR20120731005400007
여자 배구 '4강신화' 이끈 김형실 감독
https://www.yna.co.kr/view/AKR20120811059600007
한국 여자, 8강서 이탈리아 격파
https://www.yna.co.kr/view/AKR20120808021500007
올림픽 여자 배구, 강호 이탈리아에 역전승 '파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9389#0DKU
[여기는 런던] 여자배구도 한·일전 ... 36년 전 패배 되갚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9022792#home

올림픽 AD카드가 뭐길래...'코치 드림팀' 여(女)배구 속앓이
https://www.chosun.com/sports/volleyball/2021/05/18/F4JIF3LZQBASPMEHWF5BKEYJ5Y/
분명하고 냉정하게, 이정철 위원이 경험한 V-리그
http://thespik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23887799473
남녀 배구국가대표감독에 문용관,이정철 사령탑 선임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410010006976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최종 명단 확정
https://www.asiae.co.kr/article/2016052615380173991
'3가지 동기부여' 여자배구 대표팀 "40년 만의 메달 꼭 딸게요."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2090951007
선수촌 입촌 황연주 "리우, 꼭 가야죠"
https://m.inews24.com/v/950522
"눈물은 잊어줘" 분위기 메이커 여(女)배구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160807/79612860/1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선수들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680
단단히 벼른 김연경의 맹폭, 여자배구 숙적 일본 꺾었다.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55436.html
통쾌한 승리, 리우 올림픽 일본전 완승 주역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233322
[리우 올림픽]한국 여자배구, 흔들린 리시브는 박정아 혼자만의 책임일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0817000287
박정아에 쏠린 비난, 멈춰야 하는 이유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47&aid=0002124277
김철용 대표팀 감독 "한국 여(女) 배구 위기, 시스템 변화 필요"
https://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768264
경고신호가 들어온 한국배구가 선택할 길은
https://sports.donga.com/sports/article/all/20210714/107943969/1
룸 메이트로 보는 여자배구 '꿀 케미'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210803/108347018/1
'한일전 승리' 라바리니 감독 "세상 유일한 경기...기술보다 정신력"
https://www.news1.kr/articles/?4389891
'원팀'으로 빛난 女배구, 최약체 평가 뒤집은 투혼의 4위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21/08/766890/